

**로마의 동쪽: 집합적 의례의 도시
라운드 테이블**

9월 8일 (일), 오후 3시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 일환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서울도시건축전시관_서울아카이브 (B2)



2019년 9월 8일 오후 3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는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 주말을 기념하여 <Rome East: a city of collective rituals> 프로젝트가 라운드 테이블 토론의 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2019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의 공식 행사로 선정되었다.

비엔날레 도시전 섹션의 일환으로 선정된 로마 동쪽에 관한 이 프로젝트는 2A+P/A 건축 스튜디오(잔프랑코 봄바치, 마테오 코스탄초)와 다비네 사코니의 연구 결과이다.

로마시 도시건축 위원인 루카 몬투오리, 2A+PA 건축 스튜디오의 마테오 코스탄초, 명지대학교의 전진영 교수와 모토 엘라스티코의 마르코 부르노가 패널로 참여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Rome East: a city of collective rituals, 로마의 동쪽: 집합적 의례의 도시>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로마시의 패러다임을 다룬다. 그 중 하나는 6건의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오늘날 로마시의 개념적이고 기능적 가치를 분석하고 다른 하나는 로마시의 옛 지도와 설계도를 통해 도시에 관한 생각의 지도를 그린다. 가브리엘레 마스트릴리와 협력으로 16개의 로마시 설계도가 선정되었으며 줄리오 알레안드리의 사진작품으로 전시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건축 프로젝트는 로마 동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로마 동쪽은 수십년간 로마에서 가장 빈곤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인구 구성과 도시 구조간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특한 환경은 환상과 생존 사이의 장소를 정지시키는 야생적인 에너지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건축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공공장소를 설립하는데 필수적인 토지의 실질적, 형태적, 인프라적인 요소와 집단 의식의 일시적인 성격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